

FEATURE

The Effects of Changes in Daily Life and Home Economics of Adolescents on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fter Covid-19

Park, Ji-sun

Lecturer, Dept. of Social Welfare, Woosong University, South Korea

ABSTRACT

The Covid-19 pandemic, which has lasted for more than three years, is now entering an endemic phase. However, adolescent mental health problems are more serious than before the pandemic.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changes in adolescents' lives after Covid-19 might affect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nd provide basic data necessary for protecting adolescent mental health. To this end, based on the stress cognitive theory of Lazarus & Folkman (1984),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daily life, subjective health, and stress perception an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was analyzed throug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the analysis, the study used the data from the 17th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conducted in 2021. The analysis found that the more it was perceived that daily life and economic conditions deteriorated before and after Covid-19, the lower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was, and the stronger the feeling of stress was. This increased the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study suggested that a policy support plan to minimize the impact of changes in their environment on the youth would be needed. In addition, a need for a support program was suggested so that adolescents can have 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kills to maintain daily life on their own even in disaster situations.

KEY WORDS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Youth, Daily life changes, Covid-19, Mental health

Corresponding Author:

Ji-sun Park, Lecturer, Dept. of Social Welfare, Woosong University, Daejeon, South Korea.

E-mail: lundy@daum.net

 <https://orcid.org/0000-0003-2787-8262>

Received: January 28, 2023; Reviewed: February 11, 2023; Revised and Accepted: February 21, 2023

I. 서론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일상 복귀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낳은 부정적인 결과는 일상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코로나19는 다양한 계층에 불평등을 양산하며 삶의 안정성을 위협하면서 불안을 높이는 공포로 자리하였다(김호기, 2022).

청소년 또한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심각한 불안감을 안고 있다. 방역지침 강화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적 교류를 체득하는 시간 등 성장기에 경험해야 할 중요한 기회를 잃었고, 이는 코로나 블루 현상으로 이어지며 정신건강 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가져다주었다.

코로나19와 청소년 정신건강을 조사한 연구들에서는 코로나19 이전보다 후에 우울, 불안, 스트레스, 외로움을 느낀다는 청소년 비율이 증가했고, 자살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정익중 외, 2020; 김유리, 2020; 우연경 외, 2021).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변화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과몰입하거나 음주나 흡연 등 문제행동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수진, 2021).

코로나19 팬데믹이 꺾이는 추세로 접어든 이른바 엔데믹화를 맞이하고 있지만 청소년에게는 새로운 일상으로 복귀하고, 적응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가져다주었다. 거듭되는 사회 변화 과정에서 청소년의 심리·정서 등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가 관심을 쏟아야 할 과제가 된 것이다. 청소년기는 다음 발달단계로 이행하기 위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을 거듭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사회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정신건강은 다양한 요소들로 분류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요소로 우울과 불안을 들 수 있다.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메디포뉴스, 2022.10.17), 2019년~2021년 3년간 아동·청소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료 현황에 있어서 불안장애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2021년 우울증 진료 받은 청소년 수는 2019년보다 18.9% 늘어난 데 비해 불안장애로 진료 받은 아동·청소년 수는 39.6%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에서는 2019년 대비 2021년 44.4% 많아졌고, 고등학생에서는 2019년 대비 2021년 36.8% 증가하여 코로

나19로 인한 청소년 불안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볼 수 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듯 실태 파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제16차 조사부터 범불안장애 변수를 추가하였다.

범불안장애는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근심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증상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다른 불안장애 유형과 비교하여 증상이 불분명하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불안감과 경계가 모호하여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려운 증상이기도 하다 (Achenbach, 1993; 임수진, 2021에서 재인용). 특히 청소년의 범불안장애는 증상으로 보기보다 개인의 예민한 성격으로 돌리는 경향이 높아 발견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범불안장애를 예측하고 범불안장애가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을 밝혀내는 일은 청소년 범불안장애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스트레스인지이론에 기반하여 청소년의 일상생활 변화 및 가정경제 변화가 스트레스인지와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해 범불안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코로나19와 청소년의 생활 변화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청소년의 생활환경을 크게 바꿔놓았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학교는 전면 휴교하고,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가정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고, 운동과 같은 신체활동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 식사 시간은 불규칙해지고, 배달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가 많아졌다. 반대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아침 결식 등 끼니를 거르는 청소년들이 늘어났다. 한편 TV나 동영상 시청, 온라인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났다(정익중 외, 2020; 김유리, 2020; 우연경 외, 2021). 자연스럽게 미디어 사용 환경에 과다 노출되면서 청소년과 보호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고, 스마트폰 과의존은 범불안장애를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임수진, 2021).

코로나19 장기화는 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청소년들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나 자발적 고립 경향을 보였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2).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의 발달상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또래 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청소년 개인의 탐색과 성장 기회를 앗아가기 때문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교류 및 활동 제한은 청소년 활동 등 사회참여에도 제약을 가져다주어 청소년기에 생성되어야 할 자율성을 떨어뜨리고,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경험을 놓치게 된다.

코로나19는 청소년의 생활리듬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생체시계와 일상생활의 불일치로 수면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최지욱, 2021). 청소년 수면 문제는 신체와 정신 전반에 걸쳐 다양한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무너진 일상생활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를 시사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와 가계소득 감소의 악순환이 초래되면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손병돈·문혜진, 2021). 이처럼 코로나19에서 기인한 생활 변화는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범불안장애 개념 및 현황

범불안장애는 대표적인 불안장애 중 하나로,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이를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범불안장애는 1980년 미국정신과학회가 발간하는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3판(DSM-III)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DSM-III에서는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광범위한 불안과 근육 긴장감, 자율신경계의 기능항진, 염려스러운 기대, 경계 등 4가지 증상 중 3가지 이상의 특성을 보이는 경우를 범불안장애라고 하였다. 1987년 개정판(DSM-III-R)에서는 다양한 상황 또는 활동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불안, 관련된 18가지 증상 중 적어도 6개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범불안장애로 진단하도록 하였다.

1994년 DSM-IV에서는 스스로 조절되지 않는 걱정이나 불안 증상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최소한 한 번에 며칠 이상 존재할 경우를 범불안장애로 보았다. ① 안절부절 못함 또는 가장자리에 선 듯한 이슬이슬한 느낌, ② 쉽게 피로해짐, ③ 주의집중이 어렵거나 멍한 상태, ④ 화를 잘 냄 ⑤ 근육 긴장, ⑥ 수면 장애 등 6가지 증상 중 3가지 이상이 동반할 때 범불안장애로 진단한다(송정민·채정호, 2005).

DSM-V에서는 범불안장애를 DSM-IV에 제시된 진단기준에 더해 장애가 물질이나 의학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을 때 진단하도록 하고 있다. 범불안장애의 핵심 증상은 지나친 걱정이지만 다른 불안장애 유형과 비교하여 증상이 불분명하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불안감과 경계가 모호하여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렵다(Achenbach, 1993; 임수진, 2021에서 재인용). 이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의 예민한 성격 또는 소극적 기질로 치부해 버리거나,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고 타박하며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 조기 발견이 좀처럼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연합뉴스, 2022.11.26). 관련하여 김근향(2012)은 정상적인 걱정과 병리적인 걱정을 구분하기 위해 걱정의 심각도나 빈도 평가 외에 걱정의 주제나 내용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 걱정의 주제가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악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범불안장애를 포함한 불안장애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7~2021년 불안장애 진료 추이에서 불안장애 환자 수는 2017년 653,694명에서 2021년 865,108명으로 32.3%(연평균 7.3%) 증가하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연령대별 불안장애 환자 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21년 환자 수는 20대 86.8%, 10대 78.5%, 10대 미만 57.8%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층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9년~2021년 아동·청소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료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메디포뉴스, 2022.10.17), 불안장애 증가율이 두드러졌는데 2021년 불안장애로 진료 받은 아동·청소년 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대비 39.6% 늘어나 같은 시기 우울증(18.9%)보다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아동·청소년 불안장애 환자 진료 현황을 보면, 중학생에서는 2019년 대비 2021년 44.4% 많아졌고, 고등학생에서는 2019년 대비 2021년 3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소년 불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3. 청소년 범불안장애와 관련 요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불안장애 연구를 살펴보면, 우울증, 공황장애와 함께 다룬 연구(문혜린·박태영, 2019; 김현진 외, 2022), 범불안장애 진단(송정민·채정호, 2005; 김근향, 2012), 범불안장애의 상위범주인 불안장애를 주제로 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이호준 외, 2009). 전혜숙·홍기형(2019)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친구와 학교 스트레스로 불안과 우울이라는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면 이에 대한 회피로 스마트폰 중독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함께 2020년부터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범불안장애 변수가 처음으로 추가되면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이차자료를 활용하여 범불안장애를 주제로 한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임수진, 2021; 박민영 외, 2022; 이윤영·서희정, 2022; 신희민 외, 2022; 강제욱, 2022; 김은경, 2022; 김진영 외, 2022). 이들 연구에서는 범불안장애 선별도구인 GAD-7 절단점을 기준으로 범불안장애 위험군을 산출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는 청소년 9명 중 1명이 범불안장애 고위험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세계일보, 2022.2.17). 한편 범불안장애 증상을 경험한 위험군은 음주, 흡연, 스마트폰 과의존 또는 중독과 같은 문제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영 외, 2022; 이윤영·서희정, 2022). 또한 범불안장애가 자살생각과 자살계획 요인으로 검증된 연구 결과도 있다(이지선·박창승, 2022).

이처럼 범불안장애와 관련해서는 범불안장애를 포함하고 있는 불안장애와 관련 정신건강 요인들과 함께 다뤄지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를 계기로 청소년의 불안상태를 범불안장애 선별도구로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표된 청소년 대상 범불안장애와 관련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생활환경 속에서 청소년 범불안장애 위험군을 선별함으로써 조기발견하여 증상 악화를 막고,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범불안장애 예비위험군에 대해서는 증상으로 발현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준비하여 사회적 지원 및 개인의 회복력과 대처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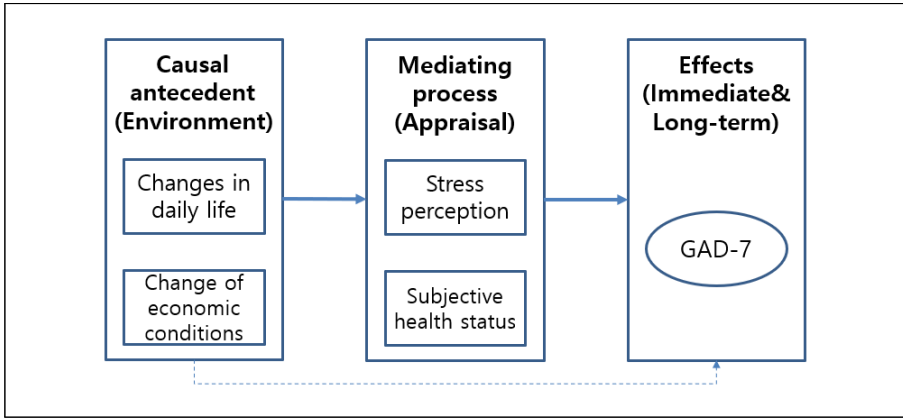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스트레스인지이론은 1984년 라자루스와 포크만(Lazarus & Folkman)이 제안한 이론으로 스트레스 발생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다. 스트레스인지이론에서는 스트레스를 한 개인과 그 개인의 복지를 저해하는 것으로 설명하며 개인과 환경 간 관계를 통해 발생한다고 하였다(박지선 외, 2015).

긴장 상태에 놓인 개인은 개인과 환경요인이라는 선행조건을 바탕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평가하게 된다. 만약 상황을 적절하게 다룰 수 없다고 판단되면 스트레스로 인지하고 그러한 스트레스는 개인의 적응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이현주·엄명용, 2013). 라자루스와 포크만(Lazarus & Folkman, 1984)에 따르면, 스트레스 전후로 인과관계를 갖추고 있는데, ‘원인이 되는 선행요인(개인요인 및 환경요인) → 인지적 평가 → 영향으로 이루어진다. 즉 특정 상황이나 사건이 개인이 보유한 자원을 통해 개인의 안녕에 위협이 되는 것이라 판단되면 스트레스로 인지되는 과정이다. 인지적 평가 과정은 일차적 평가와 이차적 평가로 나누어지는데 일차적 평가는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 되었을 때 선행변인에 따라 스트레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차적 평가는 자신이 가진 대처자원을 탐색하여 대처 전략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영향은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심리·정서 변화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질환), 사회적 기능 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인지이론을 토대로 선행요인 중 환경요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변화를 설정하고, 인지적 평가로 스트레스인지 상태와 주관적 건강상태를, 장기적 변화로 범불안장애를 설정하고자 한다(〈Figure 1〉).



<Figure 1> Research Model

2.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신뢰성과 대표성을 확보한 ‘제17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21)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수행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국내 청소년의 건강행태 현황 및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수집되는 자료로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로 이루어진다(질병관리청, 202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제17차(2021) 조사는 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 총 800개교가 목표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조사 참여 한계로 총 796개교(중학교 399개교, 고등학교 397개교), 54,848명이 참여하여 학생 수 기준 조사 참여율은 92.9%였다. 표본추출과정은 모집단 층화, 표본배분, 표본추출 단계로 이루어졌다. 모집단 층화 단계에서는 39개 지역군과 학교급을 층화변수로 사용하여 모집단을 117개층으로 나누었다. 표본배분 단계에서는 중고등학교를 각 400개교로 한 후 층화변수별 모집단 구성비와 표본구성비가 일치하도록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 표본추출은 층화집락추출법을 사용하여 1차로 표본학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표본학교에서 학년별로 1개 학급을 무작위 추출하여 선정된 학급 학생 전원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4,848명 자료 중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모형검증에 필요한 측정도구에 모두 응답한 총 52,426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측정도구

1) 범불안장애(GAD-7)

범불안장애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GAD-7로 살펴보았다. GAD-7은 스피처 등(Spitzer et al., 2006)이 개발한 범불안장애 선별도구로 이후 국내외 연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었다(Korenke et al., 2007). GAD-7은 불안 증상과 기능 저하를 단시간에 평가하여 효과적으로 범불안장애를 선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신효민 외, 2022). 이 척도는 불안 상태를 묻는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0점 없음에서 3점 거의 매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범불안장애 절단점은 스피처 등(Spitzer et al., 2006) 연구에서는 10점을 기준으로 제안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5점 이상 경미한 불안, 10점 이상 중도 불안, 15점 이상 매우 심한 중증도 불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로우 등(Lowe et al., 2008)의 제안을 채택하였다. 범불안장애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한 결과, 0.898로 양호한 값을 나타냈다.

2) 스트레스 인지

스트레스 인지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평상시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 상태로 살펴보았다. 문항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1점(전혀 느끼지 않는다)에서 5점(대단히 많이 느낀다)까지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강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평소 본인의 건강 수준에 대한 인지 수준으로 선정하였다. 이 문항은 국민건강영양조사,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등 국내조사를 비롯하여 OECD Health Data의 '인지하고 있는 건강 상태(Perceived health status)' 등 세계 조사에서 사용되고 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1점(매우 건강한 편이다)에서 5점(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까지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스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일상생활 변화 및 가정경제 변화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 변화 및 가정경제 변화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상생활변화 중 3문항과 경제적 변화 1문항을 선정하였다. 일상생활 변화는 코로나 19 이전보다 이후 신체활동, 아침결식, 우울감 악화 여부로 측정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1점(매우 늘었다)에서 5점(매우 줄었다)로 되어 있다. 아침결식과 우울감을 역코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19 이전보다 이후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음을 의미한다. 가정경제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경제 상태에 대한 변화 여부를 살핀 단일문항으로 1점(매우 그렇다)에서 4점(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석 편의를 위해 역코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결과는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첫째,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범불안장애 측정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차 요인모형으로 설정하여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범불안장애 차이를 비교하고자 평균 차 검정(t-test, 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넷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연구 모형에 대한 데이터 적합도와 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연구모형에 대한 추정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였고, 모형적합도 판단을 위해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PNFI(Parsimonious Normed Fit Index)값으로 검토하였다. 모형적합도 판단 기준은 휴와 벤틀러(Hu & Bentler, 1999)의 제안에 따라 RMSEA는 .08 이하, CFI와 TLI는 .90 이상으로 하였다. PNFI는 정확한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50 이상을 판단 기준으로 하였다(최병학, 201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로 살펴보고, 이상치(경로계수 1 이상) 확인 및 통계학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성은 t값의 절댓값이 1.96 이상(5% 유의수준)일 경우로 보았다(Peek, 2000).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27,014명(51.5%)으로 여성 25,412(48.5%)보다 많았다. 학교급은 중학생이 29,464명(56.2%), 고등학생이 22,962명(43.8%)이었다. 주관적 경제상태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자의 절반이 ‘중’(25,997명, 49.6%)이라고 응답하였고, 이어 ‘중상’ 15,015(28.6%), ‘상’ 5,669(10.8%), ‘중하’ 4,789명(9.1%), ‘하’ 956명(1.8%) 순이었다. 거주 지역 규모는 중도시가 25,584명(48.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도시 23,171명(44.2%), 소도시 3,671명(7.0%) 순이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n=52,426)

Variables	Category	n	%
Gender	Male	27,014	51.5
	Female	25,412	48.5
Grade	Middle school	29,464	56.2
	High school	22,962	43.8
Subjective Economics Status	Low	956	1.8
	Lower middle	4,789	9.1
	Middle	25,997	49.6
	Upper middle	15,015	10.8
	Upper	5,669	28.6
City Size	County area	3,671	7.0
	Small & Medium city	25,584	48.8
	Large city	23,171	44.2

2. 범불안장애 타당도 검증 및 평균점수

범불안장애를 1차 요인구조모형으로 설정하고, 데이터에 대한 모형 적합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chi^2=9376.329$, $df=14$, $CFI=.954$, $TLI=.931$, $RMSEA=.113$ 으로 CFI와 TLI 값은 양호하나 RMSEA값이 기준값인 .08을 초과하였다. 이에 모형수정지수를 참고로 수정모

형에 대한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chi^2=3698.951$, $df=12$, CFI=.982, TLI=.968, RMSEA=.077로 RMSEA가 적절한 수준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1차 요인구조모형으로 이루어진 범불안장애의 구성개념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범불안장애 평균점수를 산출한 결과, 평균 11.10점, 표준편차 4.477, 범위 7~28점으로 나타났다. 범불안장애 절단점(cut-off point)을 기준으로 구분한 결과, 경미한 불안(5점 이상)은 24,959명(47.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도 불안(10점 이상) 18,190명(34.7%), 중증도 불안(15점 이상) 9,277명(17.7%) 순으로 나타났으며 4점 이하 집단은 발견되지 않았다.

〈Table 2〉 The Reliability and the Mean of GAD-7

GAD-7		$\chi^2(df)$	CFI	TLI	RMSEA
Reliability	Before modification	9376.329(14)	.954	.931	.113
	Modified model	3698.951(12)	.982	.968	.077
Category		n	%	mean(sd)	range
	Mild (≥ 5)	24,959	47.6	11.10 (4.477)	7-28
	Moderate (≥ 10)	18,190	34.7		
	Severe (≥ 15)	9,277	17.7		

3.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범불안장애 차이

연구대상자 특성인 성별, 학교급, 주관적 경제상태, 거주지역 규모에 따른 범불안장애 차이를 비교하였다. 먼저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11.86점(± 4.699), 남학생이 10.39점(± 4.132)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범불안장애 정도가 높았으며 이러한 평균 점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38.064$, $p<.001$). 학교급에서는 중학생이 11.03점(± 4.415), 고등학생이 11.20점(± 4.553)으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범불안장애 정도가 높았으며 이러한 평균 점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t=4.392$, $p<.001$). 주관적 경제상태는 상중하 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범불안장애 평균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상위층에서는 범불안장애 평균 점수가 10.79점(± 4.324), 중위층에서는 11.05점(± 4.366), 하위층에서는 12.48점(± 5.201)으로 주관적 경제상태를 낮게 인지하는 청소년일수록 범불안장애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러한 집단 간 평균 점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328.493$, $p<.001$). 거주지역 규모에서는 군지역 11.02점(± 4.520),

중소도시 11.21점(±4.512), 대도시 11.00점(±4.429)으로 중소도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소도시와 대도시 간 평균점수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3.836, $p < .001$). 즉 중소도시 청소년이 대도시 청소년보다 범불안장애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s of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y	GAD-7			
		M±SD	t or F	p	Scheff
Gender	Male	10.39(±4.132)	38.064***	.000	
	Female	11.86(±4.699)			
Grade	Middle school	11.03(±4.415)	4.392***	.000	
	High school	11.20(±4.553)			
Subjective Economics Status	Low ^a	10.79(±4.324)	328.493***	.000	c>a,b b>a
	Middle ^b	11.05(±4.366)			
	Upper ^c	12.48(±5.201)			
City Size	County area ^a	11.02(±4.520)	13.836***	.000	b>c
	Small&Medium city ^b	11.21(±4.512)			
	Large city ^c	11.00(±4.429)			

*** $p < .001$

4.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주요 변수 간 관계를 알아보기로자 피어슨(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Table 4〉와 같이, 모든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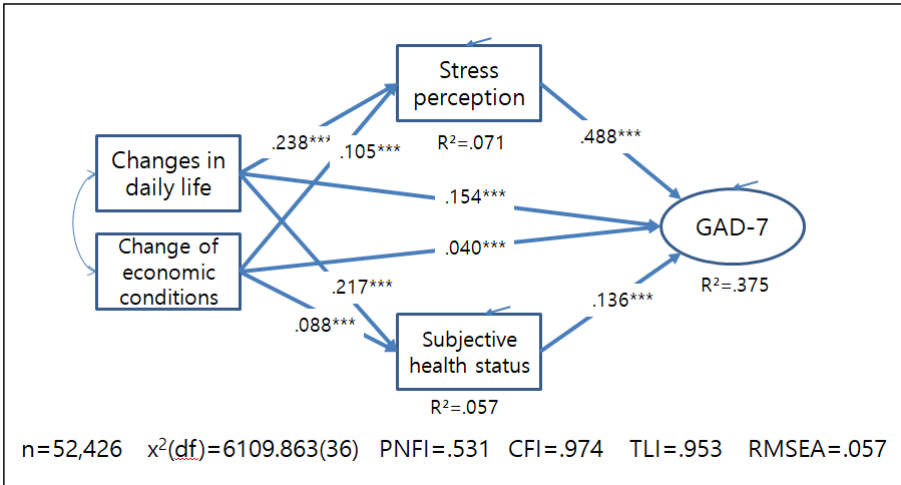
〈Table 4〉 The Correlations among Main Variables

	1	2	3	4	5
1. Changes in daily life	1				
2. Change of economic conditions	.067***	1			
3. Stress perception	.245***	.121***	1		
4. Subjective health status	.223***	.102***	.305***	1	
5.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286***	.123***	.546***	.311***	1

*** $p < .001$

5. 연구모형 검증결과

청소년의 일상생활 변화 및 가정경제 변화, 스트레스 인지 및 주관적 건강상태와 범불안장애 간 관계를 검증하고자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 확인 및 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보았다(〈Figure 2〉).



〈Figure 2〉 Analysis Results of Research Model (Standardized Coefficients)

먼저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모형적합도 지수는 $\chi^2(df)=6109.863(36)$, PNFI=.531, CFI=.974, TLI=.953, RMSEA=.057로 통계학적인 허용기준을 충족하였다.

다음으로 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모형의 모수추정치 확인 및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먼저, 스트레스 요인인 일상생활 변화와 가정경제 변화가 스트레스 인지, 주관적 건강, 범불안장애로 향하는 경로계수를 살펴보았다. 일상생활 변화와 가정경제 변화에서 스트레스 인지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각각 .238, .105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일상생활 변화와 가정경제 변화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각각 .217, .088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일상생활 변화와 가정경제 변화에서 범불안장애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각각 .154, .040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인지와 주관적 건강상태가 범불안장애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각각 .488, .136으로 나타났고, 통계학적인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다. 종속변수인 범불안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의 설명력은 37.5%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범불안장애는 일상생활 및 가정경제 변화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주관적 건강상태와 스트레스 인지를 거쳐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소년을 둘러싼 일상생활 및 가정경제 변화가 범불안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신뢰성과 대표성이 확보된 ‘제17차(2021)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라자루스와 포크만(Lazarus & Folkman, 1984)의 스트레스인지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먼저 범불안장애 절단점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고위험에 속하는 중증도 불안(15점 이상)은 전체의 17.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교 100명 중 18명 정도가 심각한 범불안장애 상태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제16차(2020) 조사자료에서는 중증도 불안에 해당하는 비율이 16.5%¹⁾로 범불안장애 고위험군 비율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21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범불안장애 고위험군 발생 위험성이 2020년과 비교하여 2021년 1.05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강제욱, 2022). 이를 통해 청소년 불안 문제에 대한 예방 및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범불안장애에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

1) 범불안장애 정도를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고자 하였으나, 제16차(2020) 조사부터 포함되어 살펴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제16차(2020) 원시자료 중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한 52,332명 자료를 가지고 범불안장애를 별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미한 불안(5점 이상) 26,006명(49.7%), 중도 불안(10점 이상) 17,717명(33.9%), 중증도 불안(15점 이상) 8,609명(16.5%)으로 나타났다.

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범불안장애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계층을 낮게 인식할수록 범불안장애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중소도시 청소년이 대도시 청소년보다 범불안장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취약한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은진 외, 2010; 김정숙, 2016; 최정원 외, 2021). 가정경제 상태와 관련해서는 가정경제 악화를 경험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불안 점수가 높다는 연구 결과(장혜림·이래혁, 2022) 및 가정경제가 악화된 집단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손서희 외, 2021) 및 가정경제 악화가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거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이래혁·이재경, 2022)와 일치하지만 가정 형편과 불안 간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은 연구(최정원 외, 2021)도 있어 결과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코로나19 전후 학생들의 심리·정서 변화를 살펴본 김유리(2021)의 연구에서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부정적 심리·정서 및 미래불안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고, 최정원 외(2021)의 연구에서도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부정적 심리·정서 및 불안이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학업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보고(세계일보, 2020.12.19)를 통해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감이 높아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라자루스와 포크만(Lazarus & Folkman, 1984)의 스트레스인지이론을 근거로 구축한 연구모형 검증 결과, 모형 적합도가 통계학적인 수준을 충족시켰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인지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일상생활 변화 및 가정경제 변화는 범불안장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스트레스 인지와 주관적 건강상태를 거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상생활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가정경제 형편이 나빠지는 과정을 겪으며 청소년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범불안장애를 높게 인식하였다. 경로계수를 단순 비교하면, 일상생활 변화가 가정경제 변화보다 스트레스 인지, 주관적 건강상태, 범불안장애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일상을 보살필 수 있는 직접적인 심리·정서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아울러 범불안장애에 대한 선행요인의 설명력이 37.5%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연구에서 결정계수가 13% 이상이면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고한 코헨(Cohen, 1988)의 연구 결과를 참고해 볼 때 매우 높은 설명력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현대사회의 전례 없는 대표적 위기로 개인의 심리·사회적 및 경제적 측면 등 일상생활 전반을 바꿔놓았다. 성인과 비교하면 청소년이 코로나19 감염률은 낮다고 알려져 있으나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 등 청소년을 둘러싼 제반 환경 기반이 취약해지면서 청소년에게 스트레스 증가와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감을 증폭시켰다(최지욱, 2021). 비(非)코로나 시기에도 가정경제 상황은 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발생 후 경제적 부담감이 학생의 정신건강과 더욱 관련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Iida et al., 2021)는 본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등 감염 및 재난 상황에서 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책적, 실천적 지원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범불안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개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범불안장애 고위험군 비율이 약 18%로 나타났다. 개입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범불안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청소년기는 성인기 삶으로 이행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범불안장애 예방 및 고위험군을 적시에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안에는 청소년 대상 지원기관(예를 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꿈드림센터)이나 정신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학교 단위로는 위 클래스가 마련된 곳도 있다. 이러한 기관 간 연계 및 아웃리치와 같은 적극적인 발굴 활동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인프라와 인력 부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박진우·허민숙, 2021). 중앙부처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정신건강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나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사업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준다(최정원 외, 2021). 아울러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부재하다. 이는 서비스 전달 창구가 분산되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관리체계 통합 및 전달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주무 부서에서 인프라 확충 및 인력 충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일상생활이나 경제 상황이 악화된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발생은 취약 계층에게 더 집중되었음을 목도했다(김유리, 2021). 따라서 계층 간 피해 격차를 최소화하면서 취약계층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경제적 지원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제도가 일시적으로 운영되었고, 2023년 1월 현재 지방정부에 따라 지급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다(한겨레, 2023.1.13). 그러나 이러한 방편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영향을 받고, 지급 여부와 방법, 규모 등에 좀처럼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우며 현행 시스템으로는 감염에 따른 재난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다. 경제 상태 변화도 청소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요인임을 고려할 때 촘촘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상생활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및 범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이 중요하다. 따라서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과 같은 상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부정적인 외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회복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2). 스트레스인지이론의 용어를 빌리면, 내적 자원으로 분류되는 레질리언스와 임파워먼트가 대표적이다. 자기회복력을 키워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이겨내는 역량을 갖추는 것으로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완화할 수 있는 보호요인이 된다. 청소년복지 영역에서 보면,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등을 주제로 다루는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은 그간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인 만큼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의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논문 및 단행본

- 강재욱(2022). COVID-19 팬데믹 이후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변화양상 비교: 2020, 2021년 청소년건강행태 조사 기반.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61(4), 317-324. [Kang, Jae-wook (2022). Mental health changes in Korean adolescents after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61(4), 317-324.]
- 김근향(2012). 범불안장애 진단과 심리학적 평가. **신경정신의학**, 51, 16-24. [Kim, Keun-hyang (2012). Diagnosis and psychological assessment of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Journal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51, 16-24.]
- 김유리(2021). **코로나19 전후 학생들의 심리와 정서 변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Kim, Yu-ri (2021). *Covid-19 jeonhu hagsaengdeul ui simli wa jeongseo byeonhwa*.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김은진 외(2010). 청소년에서 우울 및 불안 증상과 수면 곤란의 성별에 따른 차별적 관련성. **정신신체의학**, 18(2), 62-71. [Kim, Eun-jin, et al. (2010). Differential relations of depression, anxiety and sleep disturbances by gender in young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Psychosomatic Medicine*, 18(2), 62-71.]
- 김정숙(2016). **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의 정신건강 영향 요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Kim, Jung-suk (2016). *Gyeongje jeok chwiyaek gyecheung cheongsonyeon ui jeongsin geongang yeonghyang yoin*.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김지경 외(2009).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Kim, Ji-kyung, et al. (2009). *Korean Youth Panel Survey VII: Children-Youth Panel Survey 2010 basic stud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김현진 외(2002). 범불안장애환자와 주요우울증환자 간에 인지적 형태와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비교. **생물치료정신의학**, 8(1), 50-58. [Kim, Hyun-jin, et al. (2002). The comparison of cognitive styles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between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nd major depressive disord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Therapies in Psychiatry*, 8(1), 50-58.]
- 김호기(2022). 포스트 코로나로 가는 사회. **나라경제**, 379, 32-34. [Kim, Ho-ki (2022). Post corona ro ganun sahoe. *Nara Gyeongje*, 379, 32-34.]
- 남재현·이래혁(2020). 코로나19의 영향은 모두에게 동등한가?: 종사상 지위별 소득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2(4), 215-241. [Nam, Jae-hyun, & Lee, Rae-hyuck (2020). Is the COVID-19's impact equal to all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72(4), 215-241.]
- 문혜린·박태영(2019). 불안장애의 발생과정과 가족 내 역동에 관한 연구: 공황장애와 범불안장애를 가진 두 자매의 가족치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63, 5-33. [Moon, Hye-rin, & Park, Tai-young (2019). A study on generation process of anxiety disorder and dynamics of family.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63, 5-33.]
- 박지선 외(2015). 다문화가족 한국인 남편의 결혼생활 커미트먼트와 배우자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민족연구**, 61, 168-189. [Park, Ji-sun, et al. (2015). The effects of marriage commitment and marital stress on QOL in intermarried Korean husband. *Minjok Yeongu*, 61, 168-189.]

- 박진우·허민숙(2021).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지원제도 및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Park, Jin-woo, & Heo, Min-suk (2021). *Adong-cheongsongnyeon ui jeongsin geongang hyeonhwang, jiwonjedo mit gaeseonbanghyang*.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손서희 외(2021).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경제 악화가 가족생활과 심리적 복지에 미친 단기종단적 영향과 조절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6(1), 3-25. [Son, Seo-hee, et al. (2021). Financial pressure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family lif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Korea.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6(1), 3-25.]
- 송정만·채정호(2005). 일차 진료에서의 범불안장애의 진단과 치료. **가정의학회지**, 26, 517-528. [Song, Jung-min, & Chae, Jong-ho (2005). Diagnosis and treatment of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in primary practice.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26, 517-528.]
- 신효민 외(2022). 한국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과 범불안장애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제17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이용하여. **보건정보통계학회지**, 47(3), 222-231. [Shin, Hyo-min, et al. (2022). Association between second-hand smoke an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in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 Statistics*, 47(3), 222-231.]
- 우연경 외(2021). **코로나19 시기 경험에 따른 초·중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특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Woo, Yeon-kyoung, et al. (2021). *Covid-19 sigi gyeongheom e ttareun cho-jung hagsaeng ui sahoejeongseo yeokryang teukseong*.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 Evaluation.]
- 이윤영·서희정(2022). 청소년의 범불안장애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에서 신체활동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3(5), 279-286. [Lee, Yoon-young, & Seo, Hee-jung (2022). Study of the mediating effect of physical activity on the relationship of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in adolesc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3(5), 279-286.]
- 이현주·엄명용(2013). 미혼모의 스트레스대처-적응 모형검증. **사회복지연구**, 44(1), 111-140. [Lee, Hyun-joo, & Um, Myung-yong (2013). Stress-coping-adaptation model for unwed mothe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4(1), 111-140.]
- 이호준 외(2009). 소아 청소년 불안장애에 동반된 신체증상. **생물치료정신의학**, 15(1), 43-50. [Lee, Ho-jun, et al. (2009). The comparison of cognitive styles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between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nd major depressive disord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Therapies in Psychiatry*, 15(1), 43-50.]
- 임수진(2021). 한국 청소년의 범불안장애에 관련 요인. **대한보건연구**, 47(4), 197-208. [Lim, Su-jin (2021). The associated factors with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in Korean adolescent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47(4), 197-208.]
- 장혜림·이래혁(2022).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가 조손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20(4), 651-659. [Chang, Hye-lim, & Lee, Rae-hyuk (2022). The influence of family economic deterioration caused by COVID-19 on mental health among adolescents in grandparent-headed famil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4), 651-659.]
- 정익중 외(2020).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일상 변화와 정서 상태. **한국아동복지학**, 69(4), 59-90. [Chung, Ick-joong, et al. (2020). Changes in children's everyday life and emotional conditions due to the

- COVID-19 pandemic,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69(4), 59-90.]
- 질병관리청(2020).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 2차년도 원시자료**. [Korea Disease Control & Prevention Agency (2020). *Raw data from the 2nd year of the 8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 질병관리청(2022). **제17차(2021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Korea Disease Control & Prevention Agency (2022). *The 17th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2021*.]
- 최병학(2014). 민·군간 갈등관리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충청남도 계룡시·논산시를 중심으로. **분쟁해결 연구**, 12(3), 87-117. [Choi, Byoung-hahk (2014). The analysis of factors and casual relationships influencing civil-military conflict management level.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12(3), 87-117.]
- 최지욱(2021). 코로나19가 성인 및 소아청소년에 미치는 영향과 지원방안.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60(1), 2-10. [Choi, Ji-wook (2021). The effects of COVID-19 pandemic on the mental health of the general public and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supporting measure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60(1), 2-10.]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2). **청소년 코로나 3년의 마음 기록, 방전된 청소년의 심리, 어떻게?**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2022). *Cheongsoneon corona 3nyeon ui maem gillog, bangjeon doen cheongsoneon ui simri, eotteogye?*]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roenke, K., et al. (2007). Anxiety disorders in primary care: Prevalence, impairment, comorbidity, and detection.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46(5), 317-325.
- Lazarus, R.,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 Lida, A., et al.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online class environments and economic burden and mental health among university stud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apanese Journal of Psychology*, 92(5), 367-373.
- Löwe, B., et al. (2008). Validation and standardization of the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Screener (GAD-7) in the general population. *Medical Care*, 266-274.
- OECD. (2020). *Perceived health status*. <https://stats.oecd.org/FileView2.aspx?IDFile=3627d99d-fb9f-40e1-98a0-20f19c80ac5f>
- Spitzer, R. L., et al. (2006). A brief measure for assessing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The GAD-7.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66(10), 1092-1097.

2. 보도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6.24). **[보도자료] 최근 5년(2017~2021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현황 분석**.

-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June 24, 2022). *Press release: Choegeun 5 nyeon (2017-2021 nyeon) uuljeung gwa bulanjangae jinryo hyeonhwang bunseok.*]
- 메디포뉴스(2022.10.17). **코로나 장기화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적신호’ 켜져.** [Medifo News (October 17, 2022). *Corona janggihwa ro adong cheongsoneon jeongsin geongang jeoksinho kyeojyeo.*]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71223>
- 세계일보(2020.12.19). **[피로사회 리포트 10명 중 4명 심각한 스트레스···코로나로 학업 부담 가중.** [Segye Ilbo (December 19, 2020). *Pirosahoe report: 10 myeong jung 4 myeong simgakhn stress···Corona ro hakup buckam gajung.*] <https://www.segye.com/newsView/20201217520700>
- 약사공론(2022.6.24). **5년 새 청소년 우울증·불안장애 환자 최대 127% 급증.** [K-pharm News (June 24, 2022). *5 nyeon sae cheongsoneon uuljeung-bulanjangae hwanja choeclae 127% geupjeung.*]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category=C&idx=234086>
- 연합뉴스(2022.11.26). **걱정이 많은 우리 아이···“밤불안장애 의심해보세요.”** [Yonhap News (November 26, 2022). *Geokjeong i manheun uri ai···beombulanjangae uisimhae boseyo.*]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4073000505>
- 한겨레(2023.1.13). **1인 30만원, 올해도 재난지원금 주는 기초단체들···왜?** [Hankyoreh (January 13, 2023). *1 in 30 man won, olhaedo jaenan jiwongum Juneun gichochandedeul···Wae?*]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75574.html>

박지선

오카야마현립대에서 보건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우송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에서 강사로 활동 중이며,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가족 복지, 노인복지, 돌봄노동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팬데믹 시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구: 장기요양 돌봄노동자를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역할스트레스, 정서적소진, 정신건강 간의 관련성: 대전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지지와 자타탄력성의 매개효과” 등이 있다.

E-mail: lundy@daum.net

국문초록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일상생활 및 가정경제 변화가 범불안장애에 미치는 영향

박지선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3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는 팬데믹 이전보다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일상생활 및 가정경제 변화가 범불안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라자루스와 포크만(Lazarus & Folkman, 1984)의 스트레스인지이론에 기초하여 일상생활 변화, 주관적 건강 및 스트레스 인지와 범불안장애 간 관련성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2021년 실시된 '제17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 및 경제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식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는 낮아지고, 스트레스를 강하게 느끼며, 이러한 상태가 범불안장애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환경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재난 상황에서 청소년 스스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복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범불안장애, 청소년, 일상생활변화, 코로나19, 정신건강

투고일: 2023.01.28. / 심사완료일: 2023.02.11. / 게재확정일: 2023.02.21.

